

동작구 종합행정타운(복합청사) _ 2018. 5

Dongjakgu Mixed-Use Public Administration Complex



발주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설계자 김현호, 조원준 KIRA |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신창훈 KIRA |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주) / 설계팀 장윤규(국민대학교) · 디에이그룹 - 심형준, 한소현, 김용범, 차하나, 이동원, 신하정, 이찬혁, 김규민, 강규진, 이재원, 이혜림, 김영준, 손병욱, 민병돈, 박수지 · 운생동 - 신혜원, 황유영, 곽혜정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 대지면적 14,046.00㎡ / 건축면적 8,389.72㎡ / 연면적 49,199.18㎡ / 건폐율 59.73% / 용적률 231.78% / 규모 지상 10층, 지하 2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재 석재패널, 금속패널,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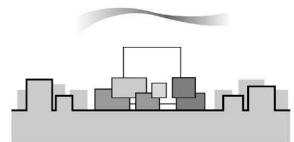


Agora of Commons _ 공동성의 아고라

동작구 종합행정타운은 권위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청사보다, 도시와 조화로운 인간 친화적 스케일의 장소이다. 행정과 시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활성화되는 지역의 중심이 된다.

도시구조적 공공건축

새로운 종합행정타운은 주변과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건축공간이다. '주변 건물, 도시의 길과 자연의 연장으로서의 건축'으로서 창의적인 공동체 역할과 장승배기 지역의 도시적 맥락을 관통하는 공공건축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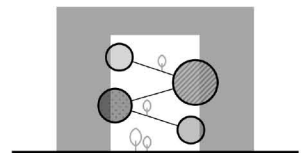
인간친화적 공공건축

동작구 종합행정타운은 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표출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된다. 도시와 만나는 작은 공간들과 그 사이에 생성되는 프로그램, 도시의 길을 통하여 동작구만의 생동하는 도시공간을 구성한다.



소통하는 작은 플랫폼

활기찬 거리와 다양한 사람이 즐겁게 소통하는 곳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담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 플랫폼을 제안한다. 각 플랫폼의 경계는 열려있으며 서로 간 융합(convergence)되는 방식으로 연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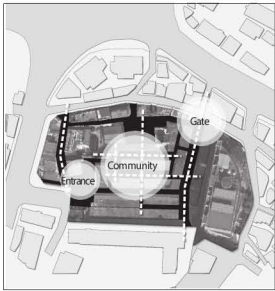
3개의 공간프로그램

AGORAZO, AGORA, ACROPOLIS를 구현한 세가지 차원의 공간 프로그램 전략을 통해 기존의 도시가로와 장소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라지려하는 영도시장의 흔적을 남긴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공간 속에서 랜드마크로서의 청사보다, 주변 컨텍스트를 배려하여 기존 도시조직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건축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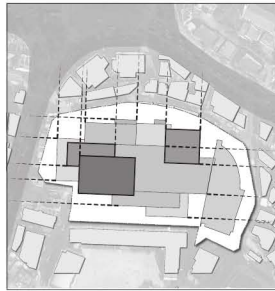


■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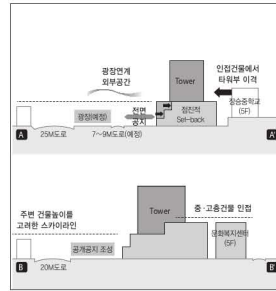
도시조직의 보존·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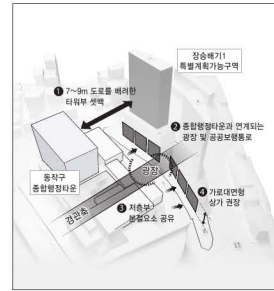
도시조직의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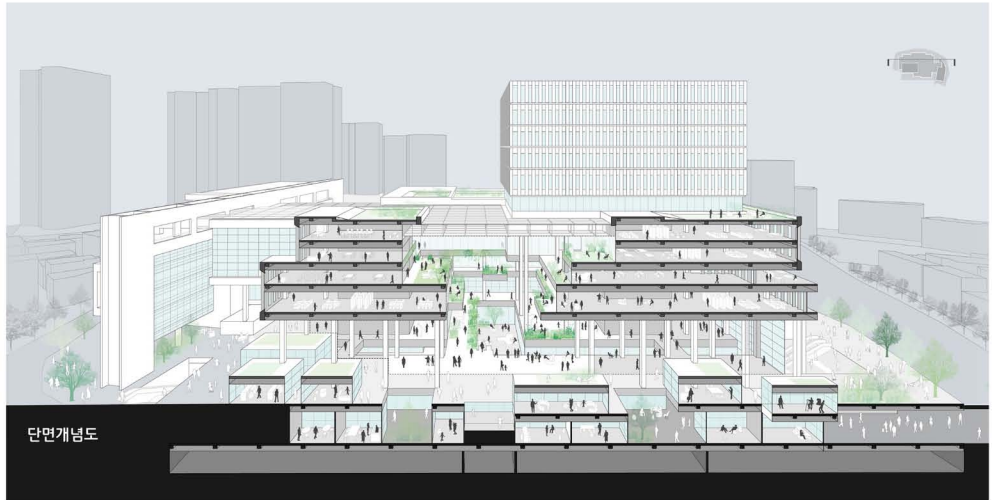
스카이라인의 변화



주변 개발과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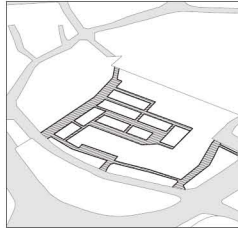


■ Atrium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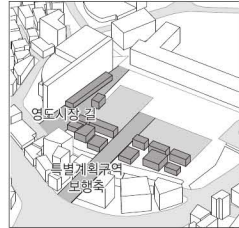


■ Mas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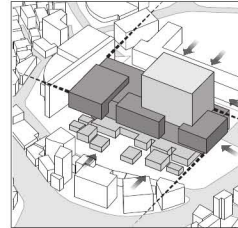
Step 1. trace



Step 2. division



Step 3. relation



Step 4. link

